지상백고좌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행복해지고 싶은가? 불행 요소부터 제거하라”

12면에 이어

평소 과음해 위장병이 생겼다면
절주 · 단주해야 건강 되찾듯이
불행 제거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 악업부터 짓지 않아야 한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진옥 스님이 이마를 맞대고 예를 표하고 있다. 진옥 스님은 1999년 달라이라마에게 보살계, 금강승계를 받고 법제자가 됐다.

진옥 스님은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을 맡고 있다. 1959년 달라이라마는 중국의 폭정을 피해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며 ‘티베트대장경’ 세 질을 가져왔다. 달라이 라마는 그중 한 질을 진옥 스님에게 주었다. 귀한 책이기에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달라이라마가 ‘그 책을 모셔두지 말고 한글 번역 작업을 하라’는 당부에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진옥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간직한 티베트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원음을 듣는 것 같아 행복하다. 다음 생에도 달라이라마가 주석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태어나 못다 한 공부를 더하고 싶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내 필자가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던졌다. 진옥 스님은 막힘없이 답을 내어 줬다.

“불교의 공성은 어렵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수보리는 ‘여래는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할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도 모두 번뇌를 없애기 위해 하신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방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진리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어요. 이 우주도 거듭 변화하잖아요. 만약에 결정되어진 법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경전을 말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반야 지혜는 진리이니 영원히 고정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 않아요. 선과 악, 부처와 중생, 번뇌와 열반 여기에 실체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설명하기 위한 상대적인 용어이니 말에 속지 말하는 것이지요. 결정되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옥 스님은 “부처님 말씀이나 또는 조사 스님 말씀을 법의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 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다. “무아인데, 윤회하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그 말은 불교 철학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아(我)가 있다면 윤회를 할 수 없지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면 변하지 않는 절대성의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브라만교의 상키야 학파가 불교한테 만방으로 깨져버린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절대적인 아(我)가 있다는 것 때문에 깨어졌어요. 절대적인 아(我)가 있다면 불변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절대적인 무엇이 있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20조개가 넘는 세포가 계속 늙어가고 죽고, 새로 생성되고 그렇게 변화합니다.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오늘로 변화하지 못해요. 영원한 실체가 없기에 계속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좁게 보면 하루하루를 볼 수 있겠지만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 있지요. 여기에서 좀 더 넓게 보면 전생과 이생, 다음 생으로 확대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중론〉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삼법인(三法印)에도 제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며, 열반적정하다고 나오듯이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자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셨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니 집착할 그 무엇이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스님께서 번역하신 〈입보리행론〉에 ‘어떤 이가 나를 보고 나쁘다고 말하거나, 다른 이를 시켜서 해치도록 시키거나, 조롱하고 하대하며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깨달음의 씨앗 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은 바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깝고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괴로움을 주지요. 보살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인욕을 가르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에게 역행하는 이가 실은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역행하는 역할을 맡은 보살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모두 아집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보듬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스님은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 보살과 보리심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갔다.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한다.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시켜주겠다고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보살이다. 보리심은 일체중생을 윤회의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이다.

“임진왜란 때 스님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 백성을 구하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지만, 한 번도 비석을 세워달라, 이름이 나게 기록으로 남겨달라,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이것을 두고 보살의 수행이라 합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 주는 인과를 지으면서 맨날 고통 속에서 또 생사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갈망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여쭈었다.

“행복과 고통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고통도 실체가 없어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해진 게 없어요. 행복 수행론이라는 것은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거해 나가면 뒤에 편안해지잖아요. 이것을 이름하여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괴로운 것도 실제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어났다가 업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않으면 고통이 없겠지요. 술을 먹어서 위장이 나빠진 사람은 술을 끊으면 병이 낫겠지요. 고통도 그런 것입니다.”

스님께 구체적인 실천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첫째는 오계를 잘 지키는 것이며, 오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절에 백 년을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라고 했다.

“오계를 잘 지키라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오계도 지키지 않으면 죽을 때가 더 부담스럽지요. 나쁜 짓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기심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진옥 스님은 BBS 불교방송 TV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반야정로〉 법문을 한다. 그리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무명을 밝히고〉 프로에서 불교신행 상담과 경전강의를 하고 있다. 석천사에서는 〈금강경〉 〈입보리행론〉 〈보살 37수행론〉 〈법화경〉 〈육조단경〉 〈수심결〉 등 여러 경전을 강의했고, 지금도 경전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 공부를 게을러서는 안된다는 스님의 신념은 확고하다.

진옥 스님은 BBS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에서 〈금강경〉 해설을 하셨고, 그것을 책으로 펴냈다. 스님은 〈설법집 금강경〉을 1만 권을 인쇄해 전남 지역과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어서 화제가 됐다. 그렇기에 스님은 모든 이들에게 간곡히 “경전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꼭 배워서 정진하세요”라고 당부한다. 수행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 내리는 당부이기도 하다. ‘불자라면 부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수행’이라는 진옥 스님의 가르침은 진중하다.

문윤정 /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